

여수 무대 오르는 ‘여순사건’

창작오페라 ‘침묵 1948’ 18~19일 여수 GS칼텍스 예울마루 대극장



창작오페라 ‘침묵 1948’이 18~19일 여수GS칼텍스 예울마루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출연진들이 공연 연습을 하는 모습. <여수심포니오케스트라 제공>

1948년 가을, 여수·순천에서 일어난 여순사건은 수많은 민간인의 목숨을 앗아가며 한국 현대사의 깊은 상처로 남았다. 극심한 이념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고한 주민들이 희생됐지만, 생존자들은 오랫동안 침묵을 강요당했다. ‘빨갱이’라는 낙인과 감사의 눈초리 속에서 그날의 진실은 말할 수 없는 기억으로 봉인돼야 했다.

그러나 역사는 사라지지 않는다. 77년 전의 비극이 음악과 노래로 되살아나며 잊힌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무대가 마련된다.

여순사건 77주년을 추모하는 창작오페라 ‘침묵 1948’이 18일 오후 5시와 19일 오후 7시 여수 GS칼텍스 예울마루 대극장에서 관객과 만난다. 여수시·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여수심포니오케스트라 주관.

‘침묵 1948’은 여순사건을 단순한 기록으로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페라라는 예술 형식으로 인간 존엄과 평화의 가치를 새롭게 비춘다. 작품은 여수의 평범한 어부 집안인 정국익네 가족과 이웃 영수네 가족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다. 고구마 하나를 나눠 먹으며 살아가던 이웃이자 친구였던 두 가족은 시대의 격랑 속에서 무자비한 폭력에 휘말리며 죽음으로 내몰린다.

1막은 1948년 10월 여수 14연대의 봉기로 막을 연다. 경찰을 제압하고 시내로 진격한 봉기군은

1948년 여수·순천서 발생

이념 분쟁 속 무고한 민간인 학살
평범한 집안 비극 오페라로 풀어내
인간의 존엄과 인권의 가치 조명
“올바른 역사 인식 되새기는 계기”

인민대회를 조직한다. 쌀과 돈을 나눠 준다는 말에 민중은 생계를 위해 모여들지만, 훗날 이 장면은 그들에게 ‘부역자’라는 굴레를 씌운다.

2막에서 진압군의 대규모 작전이 시작되며 마을은 폐허로 변한다. 피난조차 준비하지 못한 정국의 집은 방화로 무너지고, 누나 정희는 불길 속에서 목숨을 잃는다. 주민들은 학교 운동장으로 끌려가 손가락 하나에 의해 생사가 갈리는 끔찍한 순간을 맞이한다.

3막은 진압 이후의 시대를 그린다. 반공 체제가 강화되며 ‘침묵하라’는 명령이 삶을 지배한다. 살아남은 어린 정국은 가족을 잃고 홀로 남아 ‘빨갱이 자식’이라는 낙인을 짊어진다. 차별과 가난 속에서 성장하지만 부모의 사랑과 희생은 그를 붙잡는 기억으로 남는다. 마지막 장면에서 과거와 현재, 현실과 환상이 교차하며 “잊지 말고 기억하라”

는 합창이 울려 퍼지고 무대는 관객에게 묵직한 메시지를 남긴다.

이번 작품은 2018년 여순사건 70주년을 기념해 초연된 뒤 꾸준히 무대에 오르며 그 비극의 기억을 전해왔다. 당시 시민합창단과 전문 성악가, 오케스트라가 함께한 대규모 제작으로 큰 울림을 주었으며 이번 공연은 그 성과를 이어받아 더욱 완성도 높은 무대로 준비되고 있다. 단순한 역사 재현이 아닌 비극을 기억하고 화해와 인권의 가치를 세기는 장으로서 의미를 더한다.

연출은 윤상호, 대본은 김은경, 작곡은 김주원이 맡았다. 지휘는 조정현 한국국제예술학교 이사장이 맡아 여수심포니오케스트라와 함께 무대를 이끈다. 성악가 김신혜·윤하나·이범주·장서연 등이 무대에 올라 절절한 아리아로 비극을 노래한다. 위너오페라합창단과 안다미로아트컴퍼니 무용단도 함께해 오페라의 울림을 한층 더 깊고 풍성하게 완성한다.

강해수 여수심포니오케스트라 단장 및 예술감독은 “역사는 기록되지만 예술은 기억된다”며 “이번 무대가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의 넋을 위로하고 다음 세대가 올바른 역사 인식을 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석 무료.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깊어가는 가을 독서와 열린 대화

광주문화예술도서관, 인문 독서토론 ‘책길살롱’ 참가자 모집

선선한 바람이 마음을 흔드는 계절, 책 한 권을 펼치는 일은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가장 고요한 여행이 된다. 깊이 있는 독서와 열린 대화를 통해 사유의 결을 넓히는 독서토론 프로그램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광주문화예술도서관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 독서토론 프로그램 ‘책길살롱’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오는 12월 12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시민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책을 통해 생각의 여백을 채우고,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다.

프로그램은 인문학 서적을 함께 읽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서로의 경험을 교류하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단순히 책을 읽는 데 그치지 않고 텍스트를 삶의 맥락에서 되새기며 사유를 확장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 책을 사랑하고 인문적 대화를 즐기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신청 및 문의는 문화예술도서관으로 하면 된다.

도서관팀 이한주 담당자는 “이번 프로그램이 단순한 독서 모임을 넘어 지역 안에서 지속 가능한 지성 공동체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책을 매개로 한 인문적 소통이 개인의 성찰과 공동체의 활력을 함께 이끌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작가와 독자 문학 통한 교감의 시간

‘감사나무열매’ 출판 기념회…김용빈·하세은 작가 북 콘서트 성료

‘감사나무열매’를 펴낸 김용빈·하세은 작가 초청 북 콘서트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행복가족협동조합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 서구 금호동 소재 행복가족커뮤니티센터에서 지역민을 위한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감사나무열매’ 출판 기념회가 열렸다.

‘감사나무열매’는 그림과 글을 통해 감사의 의미와 위로를 전하는 작품으로, 독자가 스스로 감사일기를 작성하고 표지에 나뭇가지 스티커를 붙임으로써 나만의 감사나무를 키우며 삶 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날 북 콘서트에서는 작가와의 대화, 독자질의응답, 창작 배경 소개 등이 이어지며 문학과 예술을 통한 교감의 시간이 펼쳐졌다.

‘감사나무열매’의 공동 저자 김용빈 작가는 회사 에덴스랩을 운영하는 청년기업가로, 2013년 ‘용빈’이라는 이름으로 음반을 발매한 이후 가수로도 활동을 이어왔다. 또한 최근에는 하세은 작가와 함께 목포 극동방송 ‘모두의 찬양’ 코너에 출연하며 대중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이번 북 콘서트에서는 디자인을 전공한 공동 저자 하 작가와 함께 출간한 ‘감사나무열매’를 직접 소개하며 창작 과정과 작품에 담긴 이야기를 풀어냈다.

공연도 펼쳐졌다. 김용빈 작가는 노래와 기타 연주를 선사했으며 행사 후반부에는 독자와 자



김용빈(오른쪽), 하세은 작가.

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사인회와 포토타임도 마련됐다.

행복가족협동조합 관계자는 “이번 북 콘서트는 청년기업가이자 예술가인 김용빈 작가와 하세은 작가를 초청해 지역민과 함께할 수 있어 뜻깊었다”라며 “앞으로도 청년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해 지역의 문화 활동을 풍성하게 일궈나갈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행복가족협동조합은 2014년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돼 지난 12년간 지역민을 위한 가족문화 조성 및 마을공동체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문화예술 11개 분야 21억원 지원

광주문화재단, 오늘부터 지원사업 공모…16일 사업설명회

내년 문화예술지원사업 공모가 시작됐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희용)은 ‘2026년도 문화예술지원사업 통합공모’를 오는 14일부터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다. 사업설명회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빛고을시민문화관 2층 공연장.

올해는 총 11개 분야에 약 21억 5000만 원을 지원하며 단체와 개인 예술인 등 총 209건 내외의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먼저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은 5개 공연장을 선정한다. 이후 각 단체는 선정된 5개 공연장 중 우선순위를 지정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예산은 총 3억 500만 원이며 6개 단체 차등 지원한다.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은 문학·미술·음악·연극·무용·전통·다원 등 문화예술 전 장르에 해당한다. 단체와 개인을 포함해 총 18억 4500만 원 규모(203건 내외) 사업을 선정한다. 세부 단위사업

별로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12억 4500만 원, 청년예술인창작지원 1억 6000만 원, 광주문화자산콘텐츠화제작지원사업 1억 8000만 원, 창작공간프로그램지원사업 1억 6000만 원, 문화예술교류지원사업 1억 원 등이다.

다만 프로그램의 규모와 장르적 특성 등을 고려해, 집중 지원 사업에는 정액 지원이 아닌 전문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차등화된다.

접수는 20일~11월 21일(오후 6시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련다/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련다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아느냐/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련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